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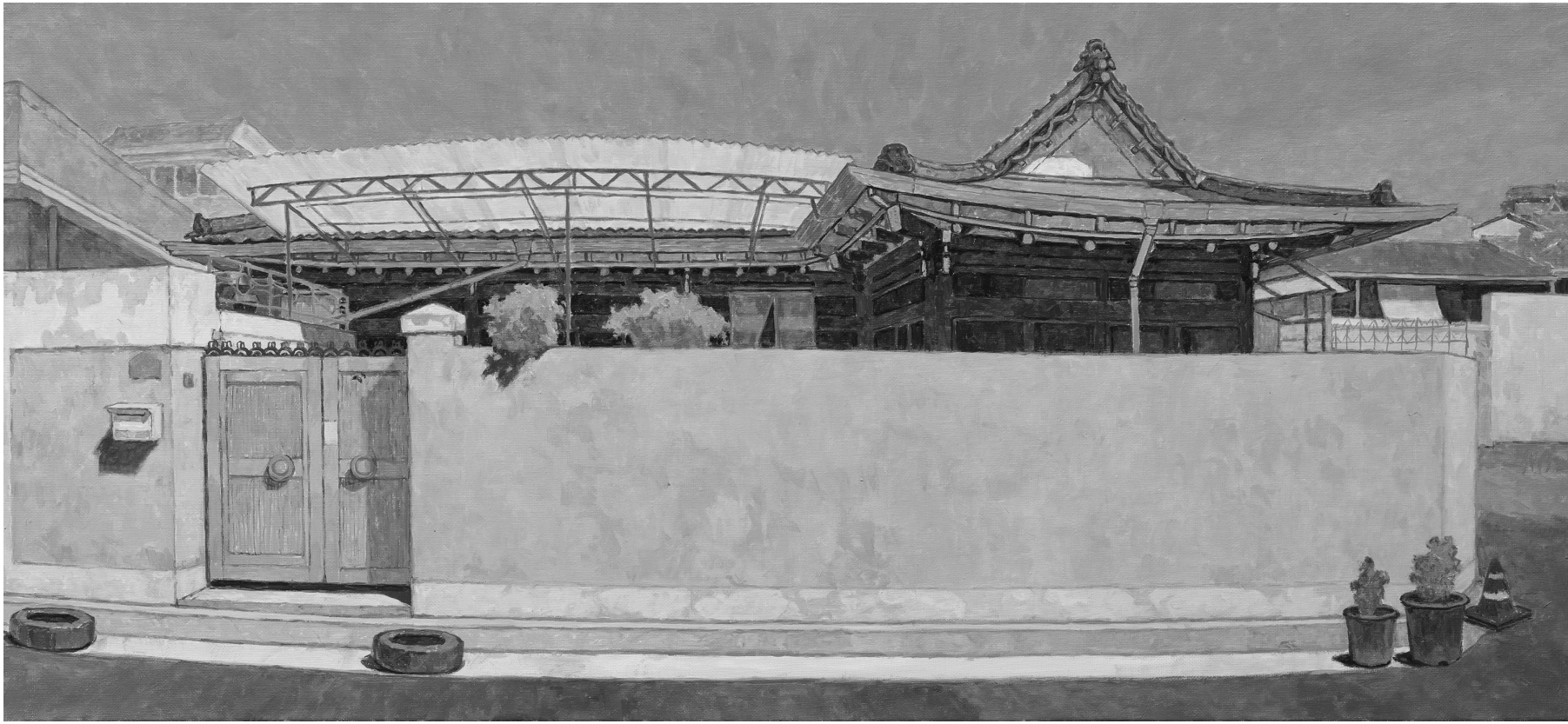
사라지는 집과 골목들, 그 흔적에 색을 입히다

노여운 기획초대전 '머무르다'
내달 14일까지 소암미술관서
유년기 풍경 채운 옛집들 추억
기록으로서 공간 재해석 눈길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브러져 있는 골목 주택가가 눈에 들어온다. 그 풍경은 오래된 듯 정갈하다. 소암미술관은 도시화와 함께 변화해 온 집의 의미를 탐구하며 삶의 흔적에 대한 노여운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는 기획초대전 '머무르다-집, 사람 기억'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집'은 한옥에서 양옥으로 다시 아파트로 변모를 거듭했고 우리의 정서와 기억까지 변화시키곤 한다. 노여운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예술로 표현하며 도시화 이전 골목길과 그 속에 살아있는 집의 따스한 온기를 작품에 담아낸다. 그의 작품 속 집들은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으며, 가족이 함께한 따뜻한 기억을 전한다.

노여운은 청년작가로 그의 작품에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과 순수함, 그리고 한국화와 서양화의 장르를 넘나드는 구도와 기법, 재료와 소재, 한국적인 아취와 양화의 풍취를 풍기고 있다. 관람객들은 어느새 경계를 허물고 그의 작품 속으로 빠져든다.

노 작가는 어린시절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팔거리 골목과 백화마을을 풍경으



노여운 작 '흘러가다'.

소암미술관 제공

로 보며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어린시절을 보냈던 학동을 마주치고, 재개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록으로서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들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도 단조로운 풍경처럼 비춰지는 까닭은 '기록'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삶의 흔적들을 담아내지만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도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흔적만으로 사람의 삶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잊고 있던 유년시절의 애절한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노 작가가 2010년대부터 천착한 골목길 시리즈는 '머무르다: 산수(2019, 산수미술관)'와 '영암산책-노여운(2022,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전시를 통해 거듭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수동의 예전 모습을 담은 '머무르다: 산수'와 영암의 풍광(風光)을 담은 '영암산책', 그리고 최신작 '머무르다' 외 5점을 선별했다. 전시작들

은 '기억하다', '남겨지다', '머무르다', '멈춰지다', '흘러가다' 등의 주제로 나뉘며 2024년 '골목길' 시리즈로 재탄생한다.

노 작가가 성장하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던 학동이라는 공간은 재개발로 동네가 해체됐지만,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간 그의 삶의 궤적이므로 개인의 역사이자 보존하고픈 공간이다. 이레 크리닝, 산장 이발, 제일슈퍼, 상상 슈퍼 등 노 작가는 지금도 미완성의 '골목길' 시리즈

를 그린다.

노여운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대학시절부터 관심 있던 골목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서울, 광주, 전주에서 개인전을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 외에도 무등미술대전 대상(2009), 어등미술제 어등미술상(2014),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2014)을 수상한 바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여성영화제 후원자 모여라!

후원의 밤 '술찬한 밤'
30일 광주독립영화관

15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30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광주여성영화제 후원행사 '술찬한 밤'을 개최한다.

후원행사 '술찬한 밤'은 여성영화제의 기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영화제에 관심 있는 광주 시민들과 기업 등에 영화제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알려 신규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영화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후원인들을 '귀득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다. '귀득이'는 '귀인'이라는 말의 전라도 방언이다.

30일 오후 6시부터 광주독립영화관 커뮤니티룸에서 후원회원 '귀득이'들이 모여 네트워킹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다과와 케이터링은 물론 참여한 '귀득이'들에게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준비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본행사는 오후 7시, 행사소개 및 감사인사말을 시작으로 '귀득이' 발족식이 진행된다. 이어 광주여성영화제, 여성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OX 퀴즈로 맞히는 '女퀴즈 온 더 무비!'가 진행된다. 이후 토크콘서트 '술찬한 언니들'이 진행된다. 변영주 감독, 이화경 작가, 허지는 감독을 초청해 여성영화제의 의미와 '귀득이'로서 느꼈던 '광주여성영화제의 순간들'에 대한

경험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

언니들이 말해주는 '언니는 누구인가?', 언니들이 생각하는 '술찬한 여성상', 각 분야에서 술찬한 언니가 될 때까지의 경험을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곁에서 도와준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나의 귀득이'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행사를 지향하여 운영한다. 네트워킹을 위한 케이터링엔 '이국칠 비건김밥', 비건 베이커리 '빵과 장미', '책과생활' 등과 협업체 모두 비건식으로 준비한다. 또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다화용기를 대여해 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예정이다.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 예산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든든히 지지해주는 후원회원들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여성영화제와 변함없이 함께 해줄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후원행사 '술찬한 밤' 참여 접수는 29일까지 받는다. 참가비는 10만원 이상이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모인 후원금은 11월에 열릴 15회 광주여성영화제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wffi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특별기획 초대전

내달 1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광주대학교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회원 93명이 참여하는 특별기획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야기에 가치를 더하다'란 주제로 지난 27일 개막된 여섯 번째 전시에서 패션, 주얼리, 시각, 제품, 패키지, 광고, 사진, 공예, 인테리어,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약하는 회원들은 미래지향적, 현대적, 감성적인 스토리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다.

'이야기에 더 강력하고 감성적인 가치를 담는다', '스토리디자인으로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스토리에 신기술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스토리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감성에 호소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 효과적으로 커뮤니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한국스토리디자인협회 특별기획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광주대 제공

이션한다' 등이다.

광주대 호심미술관 최준호 관장은 "회원들은 기획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가시적 가치를 디자인적 이야기로 위

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이며 감성적인 스토리디자인을 지향하는 점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 모집

내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광주 서구문화센터는 30일까지 '2024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예술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구문화센터는 '2024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마을과 청년예술인을 잇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공연 기회와 더불어 지역 내 문화향유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구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청년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을 한 자리에 모아 '2024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예술인의 사회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예술인의 피드백을 통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청년예술인 참가 모집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로, 다양한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예술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seogu4300@naver.com)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공연계획서, 공연영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센터문화교육팀(062-654-4323)으로 문의.

'2024 청년예술인 공공프로젝트' 공연은 10월 매주 목요일 총 3회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